꽃봉오리 솎기 노력이 절감되는 황색과육 참다래 '골드원'

곽 용 범 남해출장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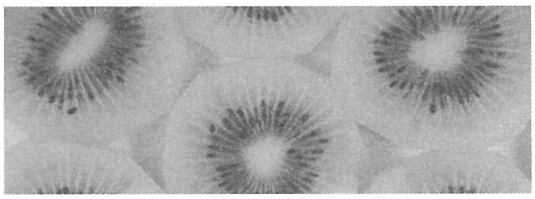
2000~2010년 사이에 국내에 출시된 황색과육 참다래 품종들은 품질 면에서는 수입산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꽃의 유전적인 특징으로 한 개의 꽃송이의 중심 꽃 양 측면에 작은 곁꽃이 2~6개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생산농가는 꽃피기 전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이들 작은 꽃봉오리를 제거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최근에 육성된 참다래 품종 가운데 생산 노동력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골드원'에 대해 소개한다.

과실의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은 골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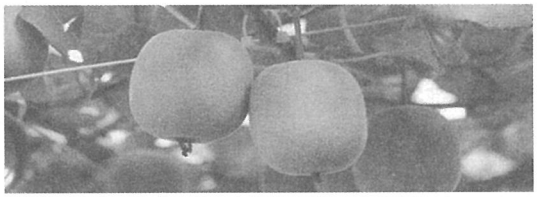
'골드원' 품종은, 2003년 암그루 '홍심' 품종에 수그루 유전자원(NHK0013)의 꽃가루를 수분시켜 만든 종자발아 개체들 중 2011년에 최종 선발된 품종이다. 나무는 3월 하순에 새싹이 트고, 한 나무 전체 꽃의 70~80%가 피는 시기는 5월 중순이다. 경남 남해안에서 당도 측정값을 기준으로 판단한 수확기는 10월 중・하순(7.5~8.5°Brix 도달시기)이다. 제주와 같이 10월 중・하순에 일교차가 크지 않은 지역은 수확기가 11월로 지연될 수 있다. 과실의 전체적인 모양은 원통형에 가까우며, 대개의 경우 한 개의 꽃송이에 중심꽃은 하나이며 곁꽃이 없어 꽃솎기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과실의 무게는 평균 약130g으로 한 개의 열매가지에 2개 이하로 열매수를 조정하면 150~180g에 도달한다. 따라서 '골드원' 참다래는 과실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장조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과실의 평균적인 당도는 13~16°Brix이며, 신맛을 느끼게 하는 산함량은 0.7~1.0%로 적다.

올해 품종보호 등록되어 주산지에서 시범 재배 중

아직까지 꽃피는 시기가 겹치거나 일찍 피는 상업적인 수분수가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일 년 전에 채취하여 냉동보관 후 인공수분에 이용해야 한다. 또한 열매가지에 열매수를 많이 남기면 새가지가 뻗어 나가는 세력이 약해져 다음해를 위한 예비가지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열매가지 하나에 2개 이하의 열매를 생산토록 하는 것이 품질과 크기에서 유리하다. 올해 3월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제4835호)되에 농가보급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주산지에서 시범재배 중이며, 2015년부터는 별도의 연구과제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지역별 특성발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골드원' 과육색



≫ '골드원' 열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4년 11월호≫